# 스님·화가의 콜라보 '一心'으로 피어나다

## 금강 스님 · 오치규 작가 '내 마음에 탑 하나' 展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위치한 달마산에는 천년고찰 미황사가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많은 석학들이 쉼을 위해 찾았던 곳, 미황사. 이 곳에서의 스님과 화가의 인연이 아름다운 미술작품으로 꽃피웠다.

인연의 주인공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오치규 작가다.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 전시전인 '내 마음에 탑 하나' 전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나우에서 펼쳐진다.

두 사람의 인연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시작됐다. 긴 작품활동에 지친 오치규 작가가 2006년 미황사에 휴식 차 방문하면서 부터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의기투합했다.



"처음 오 작가와 차담을 하며 '아 이 사람이 신선한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이 확고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백의 미가 강조되는 오 작가의 작품 또한 불교사상이 담겨있었어요.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탁본과 서예 등을 취미로 해온 금강 스님은 평소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달라이라마, 법정 스님 등의 글귀를 쓴 부채를 선물해왔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부채만도 1000개가 넘는다. 이를 본 오 작가가 스님에게 작품활동을 제안했고, 스님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재미있는 선물을 선사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을 시작했다.

### 7월 6~19일 갤러리 나우서 개최
### 2006년 미황사 첫만남서 의기투합

금강 스님은 "스님도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산사 속에도 현 시대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작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금강 스님 · 오치규 작가 作 '한 알의 모래알에서 우주를 보다'



"함께 1박 2일간 작품활동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부끄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 둘 씩 나오는 작품들에 내재된 미를 발견하시고는 저보다 더 즐기시더라구요. 저 또한 종교인, 스님과는 처음으로 협동작업을 하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치규 작가는 스님과의 협동작업이 자신의 작품에 또 다른 깊이를 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 불교철학 내재된 작품성향 특징
### 전시수익은 달라이라마 방한에 사용

작품 속 미황 스님의 글과 오치규 작가의 그림은 작품 속에서 마치 한 사람이 한 것과 같아 보인다. '한알의 모래알에서'와 같은 작품은 붓으로 찍은 수많은 점과 스님의 글을 통해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세계관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도 스님의 글귀 하나가 어우러지면 절로 무릎이 탁 쳐진다.

오 작가는 "너무 글을 잘 써도, 그림을 잘 그려도 문제다. 스님과 함께 소통하며 힘을 뺐다, 줄였다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속돼 스님이 진행하는 '참사람의 향기' 템플스테이 디자인 작업 등을 오 작가가 맡고, 오 작가가 교수로 있는 충남대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스님이 강연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전은 단순한 전시로만 끝나지 않는다. 7월 7일 오후 5시에는 금강 스님과 오치규 작가의 사인회 및 작가와의 만남이, 16일에는 '톡톡톡' 즉문즉답 콘서트 등이 함께 열린다. 향후 두 사람은 갤러리 나우의 전시전 외에도 미황사 내 갤러리와 서울의 다양한 갤러리에서 전시전과 대중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작품의 판매 수익금은 금강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방한 사업에 쓰인다. 두 사람의 유쾌한 인연이 대중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02)725-2930



노덕현 기자

# 천년고도 경주서 만나는 '신라의 빛' 향연

### 경주엑스포, 7월 5일부터 '실크로드 新(羅)光 특별전'
### 안종연 · 서남희 등 작가 8인 참여
### 미디어 · 평면 · 사진 등 작품 선보여
###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열린 미술'

천년고도서 만나는 '신라의 빛'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를 향해 지구촌 곳곳으로 발산하는 신라의 빛을 테마로 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실크로드 新(羅)光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빛'을 주제로 사진,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이다. 참여 작가로는 사진,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아트 등 분야별로 독보적인 예술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안종연 · 서남희 · 안종대 · 조용준 · 양쿠라 · 한송준 · 양재문 · 임채욱 등 8명이다.



안종연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고주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신비로운 만화경의 세계를 만들고, 관객들이 기도와 명상,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평면 유화작업부터 거대한 스테인리스 조형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안종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빛의 무한공간'을 선보인다. 고주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신비로운 만화경의 세계를 만들고, 관객들이 기도와 명상,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토함산 석굴암 본존불상 등 신라미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등 신라와 실크로드를 주제로 현대미술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설악산이 사람인 것처럼 설악산과 인터뷰한 사진으로 주목을 받은 임채욱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입체 마애불상 작품을 출품했다. 경주 남산 석불을 소재로 이를 입체 사진으로 생동감있게 재구성했다. 일반 사진용 인화지가 아닌 특수한지를 사용해 사진작품을 입체화했고, 이는 현장을 생동감있게 재현토록 만들었다. 설악산과 인터뷰해 주목을 받은 작가의 경주 남산과의 인터뷰가 기대를 모으게 한다.



사진작가 임채욱 작가는 경주 남산 석불을 소재로 한 입체 사진을 출품했다.

젊은 작가인 양쿠라는 움직이는 예술인 '키네틱아트'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아비 키네틱 아트는 70여 마리의 나비와 그 날개짓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빛을 표현한다. 또한 전시장 내에 암실을 설치해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초록색 빛을 발하며 움직이도록 만들어 오묘한 빛의 색을 느끼게 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을 통해 독특한 감흥을 자아내는 라인(line) 작업을 선보여 온 조용준 작가는 경주 전시에서도 전시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줄의 공간'을 선보인다. '스트링 공간 설치작업'인 이번 작품은 전시장 전체를 전방위로 가로지르는 색색의 튼튼한 실을 설치하고, 부스와 부스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천정에서 바닥으로 어려 빛깔의 색실을 드리워 산란하는 빛의 파장을 연상하도록 연출한다.

안종대 작가는 '빛과 시간이 만든 자연친화적 미술'을 기치로 이색적인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설치작업은 시간과 그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게 만든다. 종이 및 오브제 작품을 벽면에 설치하고 관객들이 밟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바닥에도 작품을 배치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경주엑스포 윤범모 예술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천년고도 신라와 실크로드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오묘한 빛'의 축제로 관객 참여 작품을 통해 '열린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전통은 미래와 어우러질 때 더욱 돋보인다는 점에서 전통미술의 보고인 경주에서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054)748-301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올해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태백산맥문학관, 한국차박물관, 보성문화원,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 문학 강의, 체험프로그램, 무료 및 할인입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면서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에서는 6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를 성인은 기존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초 · 중 · 고등학생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한국안의 작은 티베트'라 불리우는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은 티베트의 정신문화와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한국 불교와 영적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건립됐으며, 박물관 내부에 티베트 불교 관련 유물 6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061)852-3038

신성민 기자


#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 선 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